

2025학년도

한세대학교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5. 12.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I

서론



1. 자체평가 시행 배경 및 근거
2. 자체평가 정의 및 목적
3. 자체평가 방법 및 내용
4. 자체평가 추진경과
5. 자체평가 연혁

1. 자체평가 시행 배경 및 근거

□ 시행 배경

-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 강화
- 국제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고등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 보증체제 확보

□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한세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제4조(평가의 실시)

①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지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2. 자체평가 정의 및 목적

-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의·진리·사랑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아 우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대학의 운영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통해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우리 대학의 전 분야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층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자체평가 방법 및 내용

□ 평가방법

- 공시자료 기준 실적 중심의 평가(일부는 내부자료 활용)
- 2023년을 기준으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교육역량의 개선도 평가
 - ↳ 개선도 지수 = $\frac{\text{평가년도 실적}}{\text{기준년도 실적}} \times 100$

□ 평가내용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3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

영역	평가지표	
교육여건	1	신입생 총원을
	2	재학생 총원을
	3	중도탈락 학생 현황
	4	외국인 학생 현황
학사관리	5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6	강사 강의료 현황
학생지원	7	장학금 지원

4. 자체평가 추진경과

구분	10월	11월	12월
시행계획 수립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보고서 발간·공시			

5. 자체평가 연혁

구분	평가내용
2009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영역, 50개 지표, 1,000점 만점으로 구성 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MBO 평가로 달성도에 따른 점수 산출 평가결과 : '우수' 등급 - 726.9점 취득(목표 대비 72.7% 달성)
2011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영역 50개 지표, 1,000점 만점으로 구성 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MBO 평가로 달성도에 따른 점수 산출 평가결과 : '우수' 등급 - 886.9점 취득(목표 대비 88.7% 달성)
2013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대학기관평가인증편람에 근거하여 6개 영역, 17개 부문, 54개 준거로 구성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체계에 따라 충족, 미흡, 미충족으로 판정 평가결과 : '인증' 취득 - 49개 평가준거 충족, 5개 평가준거 미흡
2015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외 언론기관 평가 등을 포괄하여 6개 영역, 12개 부문, 48개 지표로 구성 대학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를 핵심평가지표로 반영
2017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를 핵심평가지표로 반영
2019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를 핵심평가지표로 반영
2021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를 핵심평가지표로 반영
2023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를 핵심평가지표로 반영
2025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를 핵심평가지표로 반영

II

대학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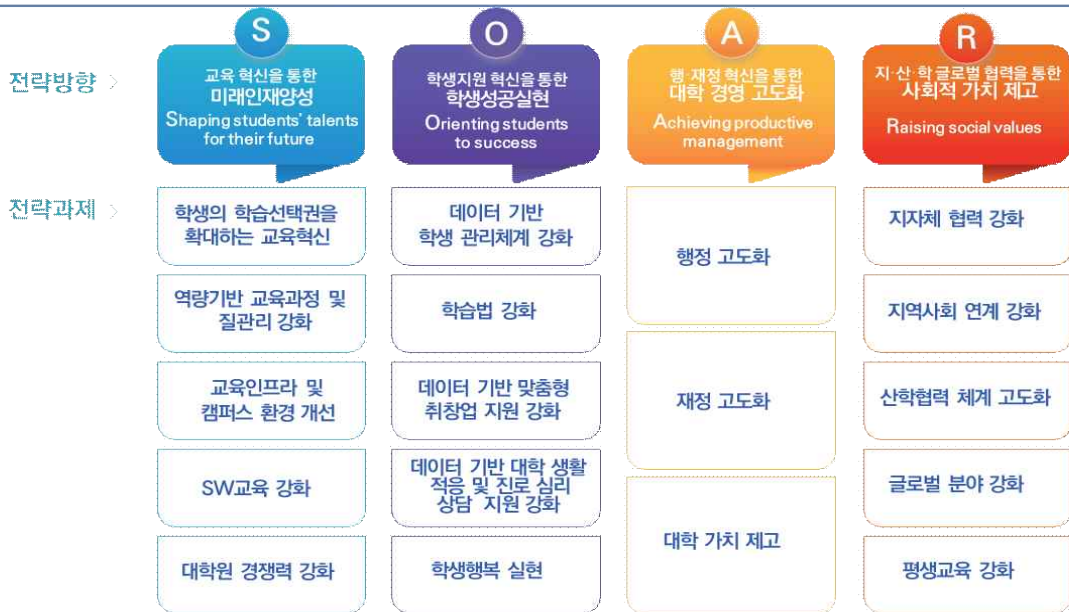
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2. 주요 연혁
3. 행정조직 및 기구표
4. 교수·직원·학생 현황
5. 주요 시설·설비 현황
6. 예산·결산 현황

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 우리 대학은 6.25전쟁의 상처로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1953년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할 지도자 양성’ 하기 위하여 설립됨
- 건학이념을 기초로 ‘의(義)·진리(眞理)·사랑(愛)’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여,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아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국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HANSEI VISION 2030」을 통해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영성중심 대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개의 전략방향(SOAR)과 18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함

HANSEI VISION 2030 비전 체계도 HANSEI UNIVERSITY

비 전 >	Soar High toward the Glorious Centennial
목 표 >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영성중심 대학
슬로건 >	Soar High! Reach Higher! 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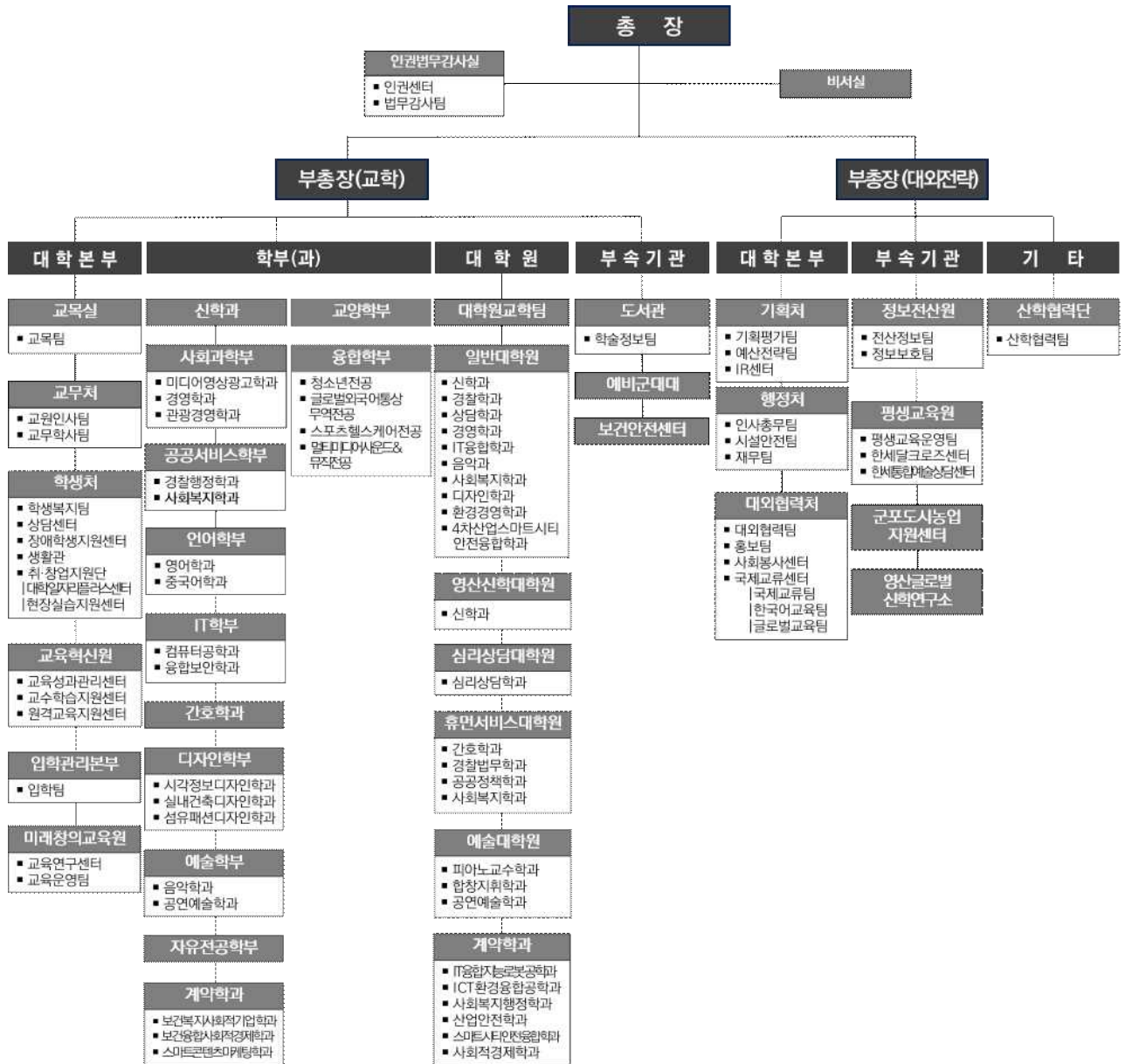


2. 주요 연혁

- 1953년 5월 오순절 성령운동의 일환으로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의해 순복음신학교로 개교한 우리 대학은 1981년 4년제 신학교로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대학 교육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1990년에 정규대학(순복음신학대학)으로 승격, 1992년에 4년제 종합대학교(순신대학교)로 승격되었고, 1997년에는 교명을 한세대학교로 변경하면서 개혁과 확장을 지속하여 주목할 만한 대학 발전을 이루었음
-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1998년)에서 최우수대학,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2005년)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1998년의 제1차 장기발전계획과 2004년의 제2차 발전계획인 「New HANSEI VISION 2010+」, 2013년의 제3차 발전계획인 「HANSEI VISION 2020」, 2019년의 제4차 발전계획인 「HANSEI VISION 2023」을 통해 변화하는 대학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제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2013년)과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2019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2025년)에서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었음

제1기 순복음신학교 (1953 ~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05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순복음신학교 창설 • 1979.02 서울시 대조동에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교사로 이전
제2기 학교법인 순복음학원 (1980 ~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12 학교법인 순복음학원 설립 및 4년제 신학교 인가 • 1985.01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승인
제3기 순복음신학대학 (1990 ~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11 정규대학 승격 및 교명 변경(순복음신학교 → 순복음신학대학) • 1991.11 신학대학원 신설
제4기 순신대학교 (1993 ~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11 종합대학교 승격 및 교명 변경(순복음신학대학 → 순신대학교) • 1994.10 일반대학원 신설
제5기 한세대학교 (1997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9 교명 변경(순신대학교 → 한세대학교) • 1999.02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2005.10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개선도 2위, 교육여건 및 재정 16위 • 2006.02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최우수) • 2006.09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국제화 6위, 외국인교원비율 1위 • 2008.08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 2008.10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국제화 5위, 외국인교원비율 1위 • 2012.0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 2013.02 청년취업 맞춤형사업 우수대학(경기도), 대학취업지원관 사업 우수대학 선정(고용노동부) • 2013.10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외국인 교수 비율 1위 • 2013.12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 • 2014.02 청년취업 맞춤형사업 우수대학 선정(경기도), 대학취업지원관사업 우수대학 선정(고용노동부) • 2015.08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우수(B등급) • 2016.10 중앙일보 전국대학종합평가 여성친화대학 최상급 대학, 창업교육 비율 종합 전국 1위 • 2018.0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5년간 총 사업비 10억원) • 2018.09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 2019.03 「HANSEI VISION 202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019.12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 • 2020.02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 2021.04 2021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선정 • 2023.03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 2023.05 개교 70주년 기념예배 • 2023.09 「HANSEI VISION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024.02 제9대 백인자 총장 취임 • 2024.04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 • 2024.05 「HANSEI VISION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비전선포식 • 2024.06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 2025.06 경기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평생교육 거점형 사업 수행 대학 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 선정 • 2025.08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

3. 행정조직 및 기구



4. 교수 · 직원 · 학생 현황

○ 교수 현황

2025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계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인문사회	10	15	29	54
자연과학	0	3	2	5
공학	2	3	3	8
예체능	13	1	9	23
계	25	22	43	90

○ 직원 현황

2025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남	여	계
교비회계	47	39	86
산학협력단회계	1	1	2

○ 학생 현황

2025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계열	학부			대학원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인문·사회계열	1,261	1,189	72	375	372	3
자연과학계열	198	164	34	6	6	-
공학계열	321	306	15	17	17	-
예·체능계열	729	681	48	212	71	141
합 계	2,509	2,340	169	610	466	144

Ⅲ

평가 결과



1. 신입생 충원율
2. 재학생 충원율
3. 중도탈락 학생 현황
4. 외국인 학생 현황
5.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6. 강사 강의료 지급 규모
7. 재학생 1인당 장학금

1 신입생 충원율

□ 평가결과

(단위:%)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77	43.4	79.1
	개선도 지수	100.0	56.3	102.8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52.9	58.9	65.0
	개선도 지수	100	111.2	122.8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46.7	71.4	68.6
	개선도 지수	100	153.1	146.9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37.9	32.9	33.3
	개선도 지수	100	86.8	88.0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66.7	46.2	38.2
	개선도 지수	100	69.2	57.7

□ 산 출 식 : 정원내 입학생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4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최근 3년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2024학년도에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2025학년도에 일부 회복 조짐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대학원별 학과별 특성과 학문 분야의 시장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충원율의 회복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로 해석된다.
- 먼저 일반대학원의 경우 2023년에 77%의 충원율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 43.4%로 급락하였

으나, 2025년에는 79.1%로 다시 기준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회복을 보였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다양한 전공군을 포함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및 경쟁대학 간 석·박사 과정 구조개편 경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회복폭이 컸다는 점은 최근 단행한 입학전형 완화와 학사구조 조정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5년 개선도지수가 102.8로 기준년도를 초과한 점은 총원율을 견인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영산신학대학원은 2023년 52.9%에서 2024년 58.9%, 2025년 65%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일반적인 대학원 시장 환경과 달리 신학 분야가 특정 수요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집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M.Div. · Th.M. · Ph.D. 등 학위 연계 구조를 강화한 제도적 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도지수가 2025년에 122.8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진학 루트의 명확화와 입시 장벽 완화가 지표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사회적 수요 증가와 직업적 전망의 확대가 총원율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2023년 46.7%에서 2024년 71.4%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66.6%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기준년도 대비 두드러진 개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개선도지수가 146.9로 전체 대학원 중 가장 높다는 점은 전문상담·임상심리 분야에서의 시장 수요가 안정적이며, 전공 비전공자 허용 및 전형 간소화가 실질적 수요층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 반면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023년 37.9%에서 2024년 32.9%로 하락하고, 2025년에도 33.3%로 거의 변화가 없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개선도지수 역시 88%로 기준년도 대비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복지·보육·케어 분야의 대표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학원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일 계열 내 전공 세분화가 부족하고 직장인을 위한 유연한 수업 운영이 부족하다는 점이 모집 실적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예술대학원은 가장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6.7%에서 2024년 46.2%, 2025년에는 38.2%까지 하락하며 3년 내내 총원율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개선도지수 역시 2025년에 57.7로 기준년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술 분야는 실기 중심 교육이라는 특성상 ‘교원 네임밸류, 시설 인프라, 무대·연주 환경’이 총원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대학원이 제공하는 인프라가 경쟁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예술대학원 시장 자체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 중 하나라는 점도 하락세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총원율은 전형 완화와 입학요건 조정 등의 제도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공 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대학원 브랜드 파워의 유무가 총원율을 개선도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에 나타난 회복세는 단기적 제도 변화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지속 가능한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의 특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선방향

- 향후 총원율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형 간소화와 입학요건 완화 정책을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2025학년도 일부 회복 사례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신입생 진입 장벽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형체계의 지속적 안정이 대학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더불어 2026학년도부터 시행하는 학석사연계과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여 대학원별 학과별 총원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원별 주요 타깃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이버 파워링크, 유튜브 광고, 직군별 타겟 마케팅 등 온라인 기반 홍보를 강화하여 수요층 접근성을 높이고, 학과별 강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시각화·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총원율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학제도 역시 전략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입생 유치를 위한 1학기 등록금 감면제도나 직장인을 위한 파트타임 장학금 등은 실질적 효과가 큰 정책으로, 재정 범위 내에서 장학제도를 보다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대학원별 특성에 따른 개별 전략 또한 중요하다. 일반대학원은 융합형 세부트랙 신설을 통해 경쟁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영산신학대학원은 학위연계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진학 루트를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심리상담대학원은 확실한 성장 분야인 만큼 실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임상 실습의 질’ 과 ‘자격증 취득 경쟁력’ 을 강조해야 한다.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직장인 중심의 수요가 높은 만큼 야간·주말 중심의 유연학기제 도입과 더불어, 사회복지·케어 분야 자격증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원은 인프라 개선·교원 네임밸류 강화·융합예술 분야로 전공 확장을 통해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총원율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 결국 대학원 총원율 개선은 단순히 전형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전공 경쟁력 강화, 입시 접근성 확대, 실무·자격 기반 교육과정 개편, 체계적 홍보전략 구축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추진되어야 가능한 영역이다. 특히 2025년의 회복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원별 맞춤형 전략과 학교 차원의 일관된 제도 운영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재학생 충원율

□ 평가결과

(단위: %)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105.4	104.6	111.1
	개선도 지수	100	99.2	105.4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53.7	59.2	58
	개선도 지수	100	110.2	108.0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56.7	61.5	70
	개선도 지수	100	108.5	123.5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32.6	30.9	30
	개선도 지수	100	97.2	92.0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55.6	48.5	32.7
	개선도 지수	100	87.2	58.8

□ 산 출 식 : 정원내외 재학생 수 ÷ 편제정원 (%)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4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대학정보공시 4-라 학생 충원현황(편입학 포함)(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최근 3개년 재학생 충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 전반에서는 대체로 완만한 등락 속에서도 대학원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이 있었으나, 2025학년도에는 일부 대학원에서 회복세가 관찰되는 반면, 몇몇 대학원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재학생 충원율은 입학생 충원율과 다르게 ‘유지율(이탈률)’ 과 ‘학업 지속 동기’ 가 결합된 지표이므로, 이번 분석을

통해 각 대학원의 학생 관리 체계, 학업만족도, 이수체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안정적인 총원율을 보인 곳은 일반대학원으로, 2023년 105.4%에서 2024년에 104.6%로 다소 하락했으나, 2025년에는 111.1%로 반등하며 기준년도 대비 105.4의 개선도지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대학원이 다양한 학문분야와 비교적 유연한 이수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학생 이탈이 적고, 입학 후 학업 지속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재학생 총원율이 '정원을 초과하여 유지되는 수준'을 꾸준히 나타내는 점은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과 학사 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 반면 영산신학대학원은 2023년 53.7%에서 2024년 59.2%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58%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개선도지수는 기준년도 대비 108.0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신학 분야 특성상 재학생 유지율이 입학생 총원율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며, 내적 요인(학업 목적의 확고함)에 의해 학업 지속률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소폭 하락세는 학생 고령화, 현직 종사자의 학업 병행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재학생 총원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6.7%에서 2024년 61.5%로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70%에 도달하며 기준년도 대비 123.5의 높은 개선도지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상담·심리 분야가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영역이며, 실무 연계성과 자격증 취득 가능성이 학생들의 학업 지속 의지를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습과 자격 과정이 연계된 학과의 구조적 특성상 '중도 이탈이 적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023년 37.9%에서 2024년 32.9%로 하락하고, 2025년에도 33.3%로 거의 변화가 없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개선도지수 역시 88%로 기준년도 대비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복지·보육·케어 분야의 대표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학원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일 계열 내 전공 세분화가 부족하고 직장인을 위한 유연한 수업 운영이 부족하다는 점이 모집 실적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반면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023년 32.6%에서 2024년 30.9%, 2025년 3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개선도지수 또한 92.0으로 기준년도 대비 감소한 상태다. 이는 해당 대학원의 학제 구조가 사회복지·보육·케어 등 다양한 직군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 부족, 업무 병행의 어려움, 경쟁기관 대비 낮은 인지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학생 유지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자 구성에도 불구하고 수업 운영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이탈률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가장 우려되는 대학원은 예술대학원으로, 2023년 55.6%에서 2024년 48.5%로 하락한 데 이어 2025년에는 32.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개선도지수는 58.8로 매우 낮아 기준년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술 분야의 특성상 실기 중심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경쟁력·교원 네임밸류·교육환경 등이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점이 재학생 유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기·프로젝트 중심 대학원의 경우 재학생 만족도와 시설 경쟁력이 재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원 전체의 학업 지속 가능성, 수업 구조 안정성, 학생 지원 수준, 만족도 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번 분석에서 각 대학원 별로 뚜렷한 특징과 과제를 드러냈다. 일부 대학원은 제도개선 및 수요 증가에 따라 개선세를 보였으나, 몇몇 대학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충원율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 개선방향

- 재학생 충원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 유지율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입학생 확보를 넘어, 입학 이후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 대학원별로 학생들이 이탈하는 주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학생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모든 대학원에서 학업 병행을 위한 유연한 수업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야간·주말 수업 확대, 온라인·블렌디드 수업 비중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등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휴먼서비스대학원과 예술대학원은 학생들의 평균 연령과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유연학기제가 갖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대학원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실습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업 동기와 자격 취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영산신학대학원은 목회 실습, 교단 연계 교육, 현장 맞춤형 세미나 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유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은 연구·논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업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 예술대학원은 실기 공간 개선, 장비 업그레이드,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시설·교육환경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셋째, 학사·행정 지원 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행정 편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논문·실기 평가 기준 명확화, 학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중도이탈 위험이 높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지원하는 ‘재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마지막으로,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딩 및 커리큘럼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총원율이 낮은 대학원 및 학과는 기존 전공명을 유지하기보다 사회적 수요가 높은 융합 분야로의 확장, 또는 직업군 맞춤형 전문과정 개설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학업에 더 높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결국 재학생 총원율 개선은 대학원 및 학과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 유연한 학사 운영·학생 맞춤 지원·교육환경 강화·브랜딩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실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재학생 유지율을 높이는 전략은 대학원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3 중도탈락 학생 현황

□ 평가결과 (단위: %)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6.91	10.8	9.8
	개선도 지수	100	64	70.5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7.77	7.2	9.7
	개선도 지수	100	108	80.1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2.38	5.4	7
	개선도 지수	100	44.1	34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8	8.7	6.1
	개선도 지수	100	92	131.1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18.37	12.1	30.9
	개선도 지수	100	151.8	59.5

- 산 출 식 : 중도탈락학생수 ÷ 재적학생수 (%)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4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대학정보공시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우리 대학원의 최근 3개년 중도탈락률을 분석한 결과, 대학원별로 탈락률의 변화폭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대학원에서는 특정 연도에 급증하는 등 중도탈락 관리체계의 안정성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도탈락률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학업 포기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학사운영·학생지원·전공적합성 등 대학원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이번 분석은 대학원의 체질을 진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먼저 일반대학원은 2023년 6.91%에서 2024년 10.8%로 급증하면서 개선도 지수도 64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5년에는 9.8%로 다소 회복되어 개선도 지수가 70.5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2024년의 이탈 증가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보여주나, 여전히 기준년도 대비 높은 탈락률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대학원의 학업부담, 연구 부담, 직장 병행 문제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대학원은 다양한 전공 학생이 혼재되어 있어, 전공별 교수 피드백 격차, 연구실 환경 차이 등이 탈락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 영산신학대학원은 2024년에 중도탈락률이 7.2%로 감소하며 개선도 지수가 108로 상승하여 긍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2025년에는 9.7%로 다시 증가하여 개선도 지수가 80.1로 감소하였다. 이는 신학대학원 특성상 고령 학생 비중이 높고, 목회·일정·사역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부 활동량이 많은 학생이 많아 학업 지속이 쉽지 않은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중도탈락률이 2023년 2.38%에서 2024년 5.4%, 2025년에는 7%로 증가하여 개선도 지수가 100 → 44.1 → 34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는 3개년 중 가장 뚜렷한 '지속적 악화' 양상으로, 상담·심리 분야의 실습부담,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 투입 증가, 실습처 확보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지속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리치료·임상실습 등의 고비용 구조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중도탈락률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반면 휴먼서비스대학원은 다른 대학원과 달리 중도탈락률이 2023년 8% → 2024년 8.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6.1%로 개선되며 개선도 지수가 131.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해당 대학원이 직장인 중심 학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학업 부담을 완화하거나 교육과정 조정 등의 개선이 실제 효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보육·케어 종사자의 학업 지속률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여, 학사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난 곳은 예술대학원으로, 2023년 탈락률이 18.3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1%로 감소해 개선도 지수 151.8을 기록하는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다시 30.9%로 급증하여 개선도 지수가 59.5로 급락했다. 예술대학원은 실기·프로젝트 중심 구조로 인해 교육환경, 시설, 실기지도체계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이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탈락률이 급등하는 특징이 있다. 2025년의 급증은 실기환경·지도교수 체계·전공 적합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예술대학원은 경쟁대학 대비 실기환경·장비·스튜디오 접근성에서 취약할 경우, 학생 이탈률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 종합하면, 중도탈락률의 변화는 대학원의 구조적 강점과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표이며, 개선도 지수를 통해 볼 때 일부 대학원은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심리상담대학원·예술대학원 등은 탈락률의 급증이 심화되어 즉각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개선방향

- 중도탈락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탈락 학생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 전체의 학업 지속성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 우선 모든 대학원 공통적으로 재학생 밀착 상담체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학기 초·중·말 정기 상담제 도입, 위험군(결석 증가·과제 미제출·연속 F 가능자·등록 지연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도탈락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 상담을 넘어 학사·실습·장학·시간표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통합 지원 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 둘째, 교육과정·수업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일반대학원과 심리상담대학원은 연구 및 실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업 과제의 적정성 검토, 실습처 매칭 지원 강화, 수퍼비전 체계 보완 등을 통해 실질적 학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신학대학원은 사역과의 병행이 어려운 고령 학생층을 고려하여 블렌디드 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직장인 특성을 반영한 야간·주말 중심 수업을 더 강화하고 과목별 실무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업 동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예술대학원은 실기 중심 학과의 특성상 시설·장비 개선이 필수적이며, 실기 지도교수의 전문성과 교육력 강화, 실기과정 단계별 운영 매뉴얼 마련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 셋째, 학생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 온라인 상담 및 증빙 처리 확대, 논문·실습 관련 실무 지원 강화 등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잡한 실습·논문 절차를 갖는 분야일수록 행정적 도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 넷째, 학생 만족도 기반의 운영 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 학기 정기 만족도 조사 외에도, 각 학과별로 문제점이 반복되는 영역(예: 실기 지도 불만, 실습처 부족, 특정 교과목 부담 과다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다음 학기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원은 브랜딩 및 경쟁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예술대학원은 전공명 변경 및 융합예술·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심리상담대학원은 실습처 확보와 자격과정 안정화를 위한 외부기관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탈락률 감소가 단기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종합하면, 중도탈락률 개선은 단순한 ‘탈락 방지’가 아니라, 대학원 교육과정·학사운

영·학생지원·교육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적 개혁 과제이다. 특히 최근 탈락률이 상승한 대학원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학생 지원 전략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원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인 학생 현황

□ 평가결과 (단위: 명)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85	133	145
	개선도 지수	100	156.5	170.6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2	3	1
	개선도 지수	100	150	50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0	0	1
	개선도 지수	100	100	200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1	2	1
	개선도 지수	100	200	100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3	2	1
	개선도 지수	100	66.7	33.3

□ 산 출 식 : 외국인 재학생 수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4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대학정보공시 4-바. 외국인 학생 현황(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 수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안정적인 유학생 유치 체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유학생 수가 1~3명 수준에 머무는 대학원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대학원별 전공 특성, 학과의 국제경쟁력, 외국인 대상 전형 및 홍보 체계 구축 수준의 차이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수는 2023년 85명에서 2024년 133명, 2025년 145명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개선도지수 또한 170.6으로 기준년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운 성

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대학원 음악과 석박사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실기, 음악치료, 문화예술경영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대학 전체의 외국인 유치 전략 강화와 홍보 확대가 일반대학원 음악과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보인 결과로 볼 수 있다.

- 반면, 영산신학대학원은 2023년 2명, 2024년 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 1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신학 분야는 외국인 학생의 문화·종교적 특성이 유입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는 특수 분야이며, 특정 지역(동남아, 아프리카 일부국가)을 중심으로 수요가 존재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2025년에 유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뿐 아니라, 입학홍보가 특정 국가·교단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2023년 0명에서 2024년 0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2025년에 1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며 개선도지수 200을 기록했다. 이는 절대적인 숫자는 매우 적지만, 상담·심리 분야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본교 교육과정의 외국인에게도 일부 매력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영어 교육과정, 자격제도 안내, 실습체계 조정 등이 미흡해 본격적인 유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023년 1명 → 2024년 2명 → 2025년 1명으로 변동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수 유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대학원은 사회복지·보육·케어 분야의 실무적 성격이 강해 국내 자격제도와 연계성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자격 취득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 때문에 유학생 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2024년 유학생 증가 역시 일시적 케이스로 보이며, 대학원 차원의 체계적 유학생 유치 전략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예술대학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명으로 크게 줄어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술계열은 외국인 학생 유입이 활발한 분야임에도 본교의 경우 전공 경쟁력, 실기 환경,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 등이 유학생 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예술대학원이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교는 언어·실기 지도 체계, 교육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 학생 유치 성과가 일반대학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대학원은 소수 정체 또는 감소 양상을 보이는 등 대학원별 국제 경쟁력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교 대학원의 국제화 정책이 구조적으로 대학원별 차별화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언어지원 체계가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전공별로 유학생이 관심을 갖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로는 특정 대학원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개선방향

- 외국인 학생 유치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국제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원별 특성 기반의 맞춤형 국제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 모든 대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기반 교육콘텐츠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영어 강좌 확충, 교육과정 요람의 다국어 제공, 실습·자격 과정에 대한 외국인 맞춤형 안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유학생 수가 낮은 대학원일수록 언어 장벽이 주요 유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둘째, 각 대학원은 전공 특성에 맞는 해외 전략국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신학대학원은 동남아·기독교 기반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아프리카 교단 등)를 중심으로 교단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심리상담대학원은 최근 상담심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베트남, 중국, 몽골 등)을 대상으로 실습·자격 과정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 예술대학원은 중국·태국·대만·말레이시아 등 예술계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온라인 포트폴리오 전형, 해외 실기 오디션 등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셋째,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유학생 맞춤형 학업·생활 지원센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자·거주·보험·생활 안내뿐 아니라, 실기·실습 등 학과별 특성에 맞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상담·예술 분야처럼 실무와 실습이 많은 학과는 유학생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별도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 넷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해외 대학·기관과의 MOU 및 공동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 복수학위제, 교환학생, 해외 실습 연계 프로그램 등은 유학생 유입률을 크게 높이는 요소이며, 본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특히 일반대학원에 집중된 유학생 수를 타 대학원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국제협력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단기적 홍보가 아닌 장기적 국제화 브랜드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 대학원 웹사이트 다국어 개선, 유학생 성공 사례 홍보, SNS 기반 글로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본교 대학원의 이미지 자체를 국제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유학생 수가 감소한 대학원은 전공명 개편, 교육과정 보강, 실습환경 개선과 같은 구조적 경쟁력 강화 없이는 외국인 유치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종합하면, 외국인 학생 현황의 개선은 단순한 홍보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전공 경쟁력 강화-언어·행정 지원-해외 전략국가 중심 홍보-국제협력 체제 구축이 결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원 전반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원에서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에 가능하도록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평가결과

(단위: %)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43.3	43.8	35.1
	개선도 지수	100	101.2	81.1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33.9	33.2	42.6
	개선도 지수	100	97.9	125.7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72.3	71.1	82.6
	개선도 지수	100	98.3	114.2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46.5	46.5	49.2
	개선도 지수	100	100	105.8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5.8	5.9	9.5
	개선도 지수	100	101.7	163.8

□ 산 출 식 : 전임교원강의담당학점 ÷ 총개설강의학점 (%)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10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정보공시 12-나-2 교원 강의담당 현황(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학원 간 편차가 크고, 일부 대학원은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지점이 존재한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의 확보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방식, 겸임·초빙교수 의존도, 전공별 교원 수급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지표이므로, 이번 분석은 대학원별 운영 방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먼저 일반대학원은 2023년 43.3%에서 2024년 43.8%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35.1%

로 큰 폭 감소하였다. 개선도지수도 2025년에 81.1로 떨어지면서, 기준년도 대비 전임교원의 강의 기여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된 일반대학원의 특성상 일부 전공에서 전임교원 부족으로 인한 외래·겸임교원 의존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학과별 교원 전공 불일치나 신규 개설 교과목 증가로 인해 전임교원 담당 비율이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 영산신학대학원은 2023년 33.9%에서 2024년 33.2%로 감소했다가 2025년 42.6%로 크게 상승하며 개선도지수가 125.7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5학년도에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가 강화되었거나 외래교원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의 교과 재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학 분야는 교과 특성상 전임교원 지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긍정적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2023년 72.3%에서 2024년 71.1%로 약간 감소했으나 2025년 8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개선도 지수 114.2로 나타나 기준년도 대비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도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심리상담 분야 특성상 실습·상담지도 등 전임교원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의 향상은 교육 질 개선과 직결되는 긍정적 결과로 해석된다.
- 반면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023년 46.5%에서 2024년 45.6%로 감소한 뒤, 2025년에는 49.2%로 회복되었다. 개선도지수는 105.8로 소폭 상승하여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 수치로 보면 50% 미만의 전임교원 강의 참여율이 유지되고 있어, 겸임·초빙교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학과임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전공별 교육 질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 가장 낮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보인 곳은 예술대학원이다. 2023년 5.8%에서 2024년 5.9%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25년에도 9.7%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록 개선도 지수가 163.8로 기준년도 대비 상승했으나, 절대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 전임교원 담당 교과가 거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예술대학원의 특성상 실기 지도는 전임교원이 아닌 외래 예술가 및 실기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학문적 체계성, 교육 표준화, 질관리 측면에서 리스크를 내포한다.
- 종합하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일부 대학원에서 개선되었으나, 일반대학원과 예술대학원과 같이 전임교원 의존도가 낮아지는 흐름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술대학원과 같이 전임교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적은 구조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즉각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 개선방향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임교원의 수를 늘리는 접근을 넘어, 교육과정 구조 개편·전임교원 배분체계 합리화·외래의존도 조정 등 다층적 전략이 필요

하다.

- 우선, 대학원 차원에서 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60% 확보”와 같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원별 성과지표(KPI)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또한 교과목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부 대학원은 전공 세부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과목 다양성이 제한되어 전임교원 배정이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이 경우 유사 교과목 통합, 전공 간 교차 개설, 공통 필수 교과 강화 등을 통해 전임교원의 강의 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반대학원은 전공군이 넓어 전임강의 배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 구조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임교원의 부재 또는 부족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예: 예술대학원), 전임교원 확충 또는 실기 전문 전임교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실무 중심 전공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전임교수 확보는 필수이며, 장기적으로는 외래교원 중심 운영이 대학원 교육의 질 보장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외래·겸임교원의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래 의존도가 불가피한 전공에서는 외래교수의 자격기준과 강의 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임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실습 평가 등 보완적 역할을 제도화하여 교육 질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구 부담과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전임교원이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강의 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무지원 확대, 연구비 지원 강화, 전임교수 중장기 교수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강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
- 종합하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개선은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 대학원의 교육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서, 대학원별 특성과 구조적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적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 교육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품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

6 강사 강의료 지급 규모

□ 평가결과

(단위: 천원)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89,910	97,332	117,465
	개선도 지수	100	92.4	76.5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31,260	30,465	18,930
	개선도 지수	100	102.6	165.1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7,425	4,125	7,425
	개선도 지수	100	180	100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1,620	7,734	3,300
	개선도 지수	100	20.9	49.1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25,170	34,080	25,140
	개선도 지수	100	73.9	100.1

□ 산출식 : 시간강사 기준단가 x 시간강사 총 강의시수 (천원)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4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정보공시 14-차 강사 강의료(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최근 3개년 강사료 지급규모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별로 강사료 투입의 구조적 패턴이 크게 다르며, 이는 전임교원의 강의 기여도(강의담당 비율), 교육과정 운영 방식, 전공 특성, 학생 규모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사료 규모가 감소한 대학원은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율이 강화된 반면, 강사료가 증가한 대학원은 전임교원 확보 또는 강의 배분 구조에서 특정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먼저 일반대학원은 2023년 89,910천원에서 2024년 97,332천원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에

- 는 117,465천원으로 급증하였다. 개선도 지수도 92.4 → 76.5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전임 교원 강의담당 비율 감소(2025년 35.1%)와 명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일반대학원이 외래강사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한 학문 전공군을 포괄하는 일반대학원 특성상 교원 수급의 균형이 중요함에도, 교과목 개설 증가 또는 전임교원 미배정 교과목이 많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강사료 증가는 운영 효율성 감소를 의미하며, 전임교원 책무성 약화와 구조적 관련성이 높다.
- 반면 영산신학대학원은 2024년에 30,465천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5년에 18,930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개선도지수가 165.1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2025년 42.6%)과도 연동되며, 해당 대학원이 전임교수 중심의 강의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학대학원은 교단·신학 특성상 전임교원의 교육적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료 감소는 긍정적 운영효율화로 평가할 수 있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2023년과 2025년 모두 7,425천원으로 동일하나, 2024년에는 4,12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개선도 지수는 100 → 180 → 100으로 변동성이 크다. 이는 2024년도에 전임교원 중심의 강의 운영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지만, 2025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은 교육과정 개편 또는 특정 교과목의 외래 배정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심리상담 분야는 실습·사례 지도 등 전임교원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래 의존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강사료가 1,620천원 → 7,734천원 → 3,300천원으로 크게 변동하였다. 특히 2024년에 강사료가 4배 이상 늘어난 후 2025년에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개선도 지수는 100 → 20.9 → 49.1로 여전히 100 이하로 악화된 상태다. 이는 휴먼서비스대학원이 일시적으로 외래교수 의존도가 급증한 후, 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다시 높이며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2023년 46.5%에서 2024년 45.6%, 2025년 49.2%로 큰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교육과정 변동이나 특정 전공의 외부 강사 배정이 강사료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예술대학원은 2023년 25,170천원에서 2024년 34,080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25,140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개선도지수도 100 → 73.9 → 100.1로 나타나, 강사료 증가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2025년에도 9.7%로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강사료 감소가 전임교원 참여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과정 조정·실기 재배치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강사료 감소가 곧바로 운영 효율화나 전임교원의 교육 기여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강사료 지급규모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과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강사료 증가가 지속되는 대학원은 전임교원 책무성 약화와 운영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원과 예술대학원은 강사료 규모가 전임교원 의존도의 약화, 교육과정 구조 미정비와 결합되어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 개선방향

- 우리 대학원의 강사료 지급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전임교원의 교육 책무성과 강의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사료 축소가 아닌 교육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대학원 각 대학원이 전임교원 중심의 교육 운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것을 대학원 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대학원별 연간 운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강의 배정 과정에서도 과목 구조를 재점검하여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전임교원에게 배정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 세부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외래강사 투입이 불가피한 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공 간 유사 과목의 통합이나 공통과목의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래강사 의존도를 줄이고 강사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임교수 중심의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강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전임교원의 강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축소·이양하고, 연구와 교육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전임교원이 대학원 강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강의 외 활동(논문지도, 실습지도 등)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임교원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강사료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대학원의 경우에는, 외래·겸임교원이 맡는 강의의 성격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강사료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 강의와 불필요 강의, 외부 전문가 투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수업과 전임교원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수업을 구분함으로써 강좌 개설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강사료 지급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예술대학원과 같이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을 지닌 대학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실기 지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수 영입, 실기전담 전임교수 트랙 운영, 겸임교수 중 우수 인력을 전임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전임교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실기 중심 교육에서 외래교원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 마지막으로, 대학원 운영 전반에서 강사료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원별 강사료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모니터링

하고, 전임교원 강의비율 및 강사로 집행 규모가 교육성과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함으로써, 대학원 차원의 교육 운영 체계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결국 강사로 지급규모의 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전임교원 중심의 책임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지속할 때, 대학원의 교육 안정성과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7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평가결과

(단위: 원)

대학원	평가 구분	2023	2024	2025
일반대학원	지표실적	764,907	733,520	809,547
	개선도 지수	100	95.9	105.8
영산신학대학원	지표실적	1,490,143	1,290,435	1,255,865
	개선도 지수	100	86.6	84.3
심리상담대학원	지표실적	1,034,329	1,229,686	1,488,395
	개선도 지수	100	118.9	143.9
휴먼서비스대학원	지표실적	780,585	939,121	657,674
	개선도 지수	100	120.3	84.3
예술대학원	지표실적	1,525,750	1,265,878	1,297,352
	개선도 지수	100	83.0	85.0

□ 산 출 식 : (교외장학금 중 사설 및 기타 + 교내장학금 전체) ÷ 재학생수

□ 산출기준 : 최근 3개년(2023-2025) 4월 1일 기준

□ 자료근거 : 대학정보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

□ 평가의견

-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대학원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별로 장학금 지원 규모의 등락 폭이 크며, 이는 대학원별 재정 여력, 학생 수 변화, 장학제도 운용 방식, 특정 연도 장학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학금 증가가 곧바로 긍정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 충원율·중도탈락률·교육성과와 함께 연계해 살펴볼 때 장학금의 전략적 운용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일반대학원은 2023년 764,907원에서 2024년 733,520원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809,547원으로 증가했다. 개선도지수도 2024년 95.9에서 2025년 105.8로 상승하며 기준년도보다 높아졌다. 이는 2025학년도에 일반대학원이 재학생 유지율 제고 또는 특정 전공의 충원률 향상을 위해 장학금 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큰 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장학금의 배분이 전략적으로 조정된 것인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영산신학대학원은 장학금이 2023년 1,490,143원에서 2024년 1,290,435원, 2025년 1,255,865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선도지수 역시 100 → 86.6 → 84.3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장학금 규모가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으로, 재학생 충원율·중도탈락률·학생 유치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신학대학원은 고령층·현직 사역자 비중이 높아 장학금이 학업 지속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한데, 장학금 감소는 중도탈락률 증가(2025년 9.7%)와도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정여건 악화 또는 장학기준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심리상담대학원은 1인당 장학금이 2023년 1,034,329원에서 2024년 1,229,686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1,488,395원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개선도지수도 100 → 118.9 → 143.9로 대폭 상승하여 대학원 중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인다. 이는 심리상담 분야의 높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맞춰 장학금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재학생 충원율 증가·중도탈락률 완화 노력 등과 연결해 볼 때 장학금이 전략적 유치와 유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장학금이 급증한 만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검토도 필요하다.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023년 780,585원에서 2024년 939,121원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657,674원으로 감소하였다. 개선도지수도 120.3 → 84.3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2025학년도에 장학금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해당 대학원이 충원율·중도탈락률·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연결해 보면, 장학금 지원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조정되었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 급격한 편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직장인 비중이 높은 휴먼서비스 분야는 장학금이 학업 지속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 축소는 향후 충원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예술대학원은 2023년 1,525,750원에서 2024년 1,265,878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297,352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개선도지수는 100 → 83.0 → 85.0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술대학원은 실기 중심 교육 특성상 장비·시설·실습환경 등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학생 개인 부담도 큰 편이다. 따라서 장학금 축소는 학생의 실기 훈련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예술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이 2025년에 30.9%로 급증한 점을 볼 때 장학금 감소가 학생 유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종합하면, 대학원별 장학금 운용 방식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정 대학원에서는 장학금 축소가 그대로 학생 이탈 증가나 충원율 악화로 이어진 반면, 일부 대학원에서는 장학금 확

대가 전략적으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학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대학원의 학생 모집·유지·성과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이므로, 장학금 구조를 대학원 운영의 핵심 전략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개선방향

-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특성과 대학원 운영 목표를 고려한 전략적 장학금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장학금을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 유치와 유지, 교육성과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정책 도구”로 재정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학금의 배분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학원별 충원율·중도탈락률·교육과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장학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 특히 충원율이 낮거나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원(예술대학원, 영산신학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장학금을 단기 지원 중심이 아닌 위기 분야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생 유지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실기비용·사역병행 부담·직장 병행 부담 등 전공별 특성이 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학원별 맞춤형 장학 패키지(실습장학, 실기장학, 직장인 장학 등) 도입이 필요하다.
- 반대로 심리상담대학원처럼 장학금 확대가 실질적으로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학원은, 현재의 장학 정책을 유지하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회계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장학금이 특정 연도에 급격히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학금 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또한 장학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학생 성과(학업성취, 재학 유지율, 충원율)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장학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대비 효과(ROI)를 분석하여, 장학금이 실제로 학업 지속 효과를 가져오는지, 충원율 개선에 기여하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장학금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학기 초 장학정책 설명과 예산 확정 절차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장학금의 불규칙한 등락은 학생의 만족도 뿐 아니라 학업 지속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학 운영 체계가 대학원의 경쟁력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 종합적으로,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대학원의 교육 질·충원율·학생 만족도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로서, 전공특성·학생구성·운영목표에 맞는 전략적 장학정책을 통해 장학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IV

평가 종합

□ 평가 종합

- 최근 3개년 대학원 운영성과를 주요 KPI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원은 일부 지표에서 개선 흐름이 보이지만, 운영 안정성과 구조적 균형 면에서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선 신입생·재학생 총원율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대학원별 편차가 크고 일부 학과에서는 총원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는 등 유입과 유지 간의 균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 중도탈락률 지표에서는 예술대학원과 일부 실습 중심 학과의 탈락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는 교육환경·학사구조·학생지원체계가 학생의 지속적인 학업 유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학생 현황은 일반대학원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반면, 특정 대학원은 유치 기반이 약해 국제화 성과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강사료 지급규모는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며, 이 두 지표는 대학원의 교육운영 효율성과 품질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신호를 준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전임교원 강의참여가 강화되면서 강사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일반대학원과 예술대학원은 여전히 외래강사 의존도가 높아 운영 효율성 저하와 전임교원 책무성 약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 장학금 관련 지표에서는 특정 대학원에서 장학금 확대가 학생 유치와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일부 대학원은 장학금 축소와 중도탈락 증가가 맞물리면서 장학 지원의 전략적 일관성 부족이 드러났다. 이는 장학금을 단순 지원 방식이 아니라 대학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정책도구로 재구조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학원 운영 전반에는 학생 유치·유지·교육운영·재정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개별 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교원 확보·교육과정의 적정화·학생맞춤형 지원·장학제도 정비 등 대학원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총원율 개선이 실제 교육 품질과 학업 지속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전임교원 중심 운영 체제 확립이 향후 대학원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